오늘의 유머

■걸린 고기만 억울한 거야

한 신사가 최고 속도 80㎞구간에서 100㎞로 차를 몰다 교통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그 신사는 자기보다 더 속도를 내며 지나가는 다른 차들을 보고 자기만 적발된 것이 억울하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몹시 못마땅한 눈으로 경찰관에게 대들었다.

"아니, 다른 차들도 다 속도 위반을 하는데 왜 나만 잡아요?"

경찰관이 물었다. "당신 낚시 해봤수?"

"낚시요? 물론이죠"

경찰관이 태연히 말했다. "댁은 낚싯터에 있는 물고기를 몽땅 잡수?" "걸린 고기만 억울한 거요"

■어느 유부녀의 구인 광고

남편에게 맞고 사는 부인이 신문 광고를 냈다. '나를 절대 때리지 않으며 밤에 나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남편 모집'

광고가 나간 뒤 어느날 초인종이 울려 부인은 문을 열고 나가 보았다.

문 밖에는 팔 다리가 없는 한 남자가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광고를 보고 왔습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팔다리가 없기 때문에 당신을 때릴 수 없습니다"

그러자 부인이 말했다.

"그러면 어떻게 저를 만족시켜주실 건가요?"

남자는 웃으며 말했다.

"제가 초인종을 어떻게 울렸겠습니까?"

■너무 착한 간호사

간호사가 병실에 들어오더니 쿨쿨 자고 있는 환자를 마구 흔들어 깨웠다.

"아, 졸려""그런데 간호사, 무엇 때문에 날 깨웠지?"

간호사는 약봉지를 내밀며 말했다. "수면제 드실 시간이에요"

◀자른다고 오픈카? 〈디시인사이드〉

사진기자의 딴 짓

'국민 오락' 삼매경…

제법 쌀쌀했던 날씨가 풀리면서 많은 노인들이 광주공원을 찾았습니다.

집 나와 바람이라도 쐬면 답답한 마음은 덜하겠지 하는 심정으로 온 노인들이지요.

이 곳에서 별달리 할 일이 있겠습니까. 안면 있는 노인들과 어울려 화투를 치고, 또 그 모습을 보면서 얘기를 나누는 정도지요.

'불법 도박'이라는 말을 꺼내는것은 조금 야박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들 노인들의 쌈짓돈을 노리는 일부 프로들에 대한 단속은 이뤄져야겠지요.

일제와 6·25전쟁 등 험한 시대를 헤치고, 1970~80년대의 경제발전에 기여했던 이들입니다. 하지만 이제 사회로부터 가장 소외된 계층입니다.

우리 노인들 여가문화가 뭐 있었던가요.

이들에게 일자리를 챙겨주면 더욱 좋고 화투패 쳐다보는 것 말고 다른 놀이라도 만들어 주는것, 정부가 해야 할 일 아닌가요.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뉴스퀴즈 45·46회 김미영씨 1등

광주일보가 실시한 45·46회 뉴스 퀴즈 추첨 결과, 김미영씨가 1등에 뽑혔습니다.

김씨는 15일 광주일보 편집국에서 열린 상품 추첨식에서 진공 청소기의 주인으로 당첨됐습니다.

45·46회 뉴스 퀴즈에는 엽서와 편지로 309명이 응모했으며,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정답자 2명을 뽑아 순서에 따라 등수를 정했습니다.

광주 신세계백화점 홍보 사원 박선영씨가 추첨을 했으며, 공정한 추첨을 위해 광주동부경찰서 금남지구대 이승만 경장이 입회했습니다.

당첨자 명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1등 ▲김미영·광주시 서구 풍암동

2등 ▲김상우·광주시 동구 산수동

〈지난주 정답〉

45회 - ① 사담 후세인, 46회 - ④ 돼지

뉴스퀴즈

47.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9일 특별 담화를 통해 개헌을 제안하면서 대선 정국에 파란이 일고 있습니다.

노 대통령은 현행 대통령제 임기를 바꾸자고 밝혔는데, 지난 87년 개헌 이후 20년 만에 권력구조 개편이 본격 추진된다는 점에서 헌정 질서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노 대통령이 제안한 개헌안은 현행 대통령 임기를 어떻게 바꾸자는 것인가요.

① 4년 연임제 ② 5년 단임제
③ 7년 단임제 ④ 8년 연임제

참여 방법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삼성전자 고급 진공청소기 1대, 2위 무등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드립니다. (연락전화번호 미표기시 추첨에서 제외)

보내실 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퀴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월 16일(음 11월 25일 庚戌)

子 36년생 기분 좋은 하루가 되리라. 48년생 작은 것이 소중하니 오히려 주의하라. 60년생 직장에서 인정과 칭찬을 받는다. 72년생 불요불급한 구매로 소비가 생긴다. 84년생 생긴 돈보다는 소비가 크다. 행운의 숫자 : 21, 25

丑 37년생 지식보다 지혜를 보여줘라. 49년생 너무 무리한 일은 벌리면 손재가 크다. 61년생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생긴다. 73년생 멀리서 귀인이 찾아온다. 85년생 代價가 없는 인덕은 좋은 인연을 만들게 되리라. 행운의 숫자 : 08, 37

寅 38년생 단순하고 과감한 방법이 지름길이다. 50년생 현실보다는 큰 꿈을 가져라. 62년생 고난을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대응하라. 74년생 작은 일을 잘하는 사람에게 큰일을 맡기니 제사를 철저하게 마무리 하라. 행운의 숫자 : 11, 34

卯 39년생 해결이 안 되는 일은 없다 걱정을 버려라. 51년생 마음의 문을 열면 희망도 보인다. 63년생 옛 친구를 만나서 좋은 시간을 갖는다. 75년생 이왕 출발했으면 옆은 보지 말고 앞만 보고 돌진하라. 행운의 숫자 : 07, 40

辰 40년생 자신보다는 남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라. 52년생 자신의 입을 조심하라 스스로 만든다. 64년생 오늘은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라. 76년생 가정불화는 피하라 불연이면 이별 수도 보인다. 행운의 숫자 : 05, 26

巳 41년생 과거에 억매이지 마라 새로운 인생을 계획하는 것이 좋으리라. 53년생 인생의 또 한 번의 도전을. 65년생 걱정을 버려라 대부분의 걱정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내용이다. 77년생 옳은 생각은 올바른 행동을 낳는다. 행운의 숫자 : 14, 38

午 42년생 재물을 나누면 행복은 배가 된다. 54년생 마음을 비우면 오히려 채워진다. 66년생 주변의 친척을 찾아보라. 78년생 밖의 일은 아랫사람에게 부탁하고 내부의 일을 잘 챙겨야 실패가 없으리라. 행운의 숫자 : 17, 29

未 43년생 옛 친구에게 마음을 부드럽게 가지면 원하는 것을 얻으리라. 55년생 용기 있게 친구에게 도움을 청하라 반드시 도움이 되리라. 67년생 아침은 즐거우나 오후는 무료하다. 79년생 주변의 이성에게 인기가 상승한다. 행운의 숫자 : 03, 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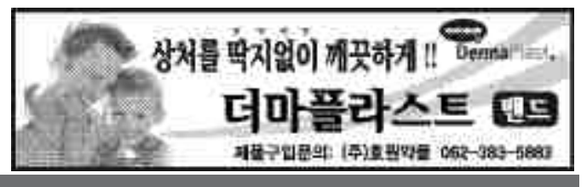
申 44년생 오래된 문서가 큰 재물로 변한다. 56년생 친구에게서 좋은 소식이 전해온다. 68년생 친구와 좋은 곳에서 일을 꾸민다. 80년생 과거는 과거일 뿐이니 얽매이지 말고 새로운 일을 추진하면 결과도 좋으리라. 행운의 숫자 : 09,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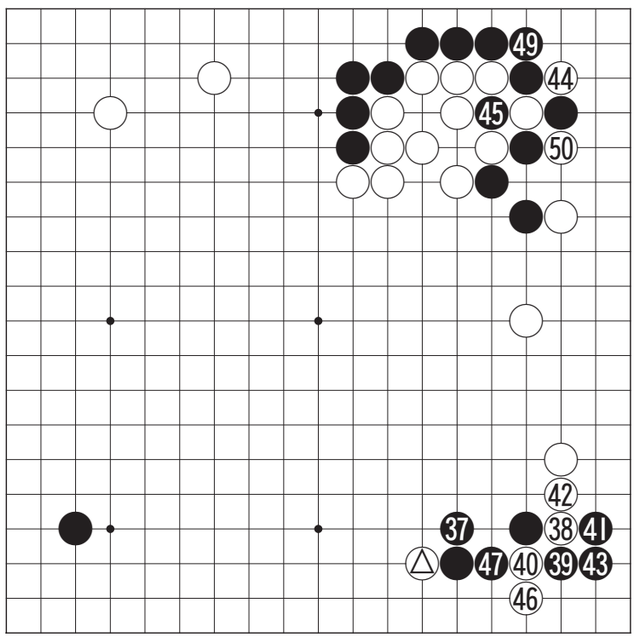
酉 45년생 오늘은 고통이지만 내일을 기약하라. 57년생 다투지 말고 협상에 응하라 칼자루를 쥐었다. 69년생 달콤한 말은 독이니 혹하지 마라. 81년생 여유 있게 행동하면 득이 되고 급하면 실이 된다. 행운의 숫자 : 01, 35

戌 46년생 마음이 허하니 기도하고 심신의 안정을 기하라. 58년생 문단속을 잘하면 실물은 없으리라. 70년생 자식에게 신경을 써라 자식은 자신의 희망이다. 82년생 소원했던 여자친구에게서 연락이 온다. 행운의 숫자 : 19, 31

亥 47년생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면 손재도 비켜간다. 59년생 윗사람의 충고를 들으면 잠을 자다가도 떡을 얻으니 귀를 기울이라. 71년생 십년 묵은 체증이 내려간다. 83년생 하루가 대단히 불편하리니 지난다. 행운의 숫자 : 04, 44

www.cafe.daum.net/sajoo114 ☎011-632-61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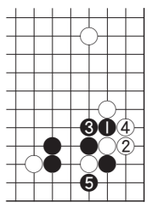


제2회 전남호지사배 바둑대회 최강부 결승

눈앞의 이득

4보(37~50)

白 홍석의 6단 〈목포시〉 黑 김종민 6단 〈해남군〉



〈참고도〉

우상귀에서 패를 둘러싼 탐색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 패는 백에 비해 흑이 훨씬 데미지가 크다. 그러나 당장에는 백도 팻감이 없기 때문에 일단 패를 보류하고 백 ◬로 강렬하게 붙여간 장면이다.

흑 37로 튼실하게 받은 것도 패를 의식한 행마다. 그러자 홍석의 6단은 다시 백 38로 붙이고 40으로 끊어 계속해서 흔들어댄다.

이제 김종민 6단의 인내심도 한계점에 도달했다. 우상귀의 패를 의식한다면 '참고도'의 흑 1로 두고 5까지 패감을 최소화해 패싸움에 대비해야 하지만 눈앞에 빤히 보이는 이득을 놓치기가 싫어진다. 그래서 삼수갑산을 가더라도 패는 나중에 생각하기로 하고 우선 41로 몰아 43으로 꽉이어 버렸다.

이렇게 되면 부분적으로는 백이 대손해, 그러나 이것은 흑이 걸려들었다.

홍 6단은 기다렸다는 듯이 44로 몰아 패를 시작하고 46으로 내려서는 기분좋은 패감을 쓴 다음 50으로 천지대패를 감행한다. 흑의 위기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바둑소식

日 만나미, 정관장배 4연승 제동

일본의 만나미 카나 3단이 15일 한국기원 바둑TV스튜디오에서 열린 제5회 정관장배 세계여자바둑최강전 7국에서 중국의 장옌 2단에게 235수 끝에 흑 10집 반패했다.

전날 한국의 현미진 4단을 꺾고 이번 대회 첫 3연승을 질주했던 만나미 카나는 이날 패배로 연승행진을 마감했다.

장옌은 지난 2002년에 열린 제2회 전국체육대회 여자부 우승, 2004년 건교배 여자부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는 등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중국의 차세대 기사다. 한국은 16일 이민진 5단과 박지은 6단 가운데 한 명이 정옌을 상대로 대국한다. 우승상금은 7천500만원.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굿모닝 잉글리쉬 <820>

I really need to ~

저는 사실 ~해야 할 것 같습니다

A:So, shall we wrap this one up for you?
B:I don't think so. **I really need to** think about it for a few days.
A:You're aware that this sale ends today? I can't hold it for you at this price after tonight.
B:I may just have to wait until it's on sale again.

A:그러면 저희가 이것을 포장해 드릴까요?
B:놔두세요. 며칠 동안 그에 대해 좀 생각해봐야겠습니다.
A:할인 판매가 오늘 끝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오늘 저녁 지나면 이 가격에 판매할 수 없습니다.
B:다음 할인 판매 일까지 기다려야겠습니다.

wrap up : 포장하다
I don't think so : 아닌 것 같은데요
think about~· : ~을 고려해 보다
hold : 붙잡다, 미루다

〈동아 외국어학원 제공〉
www.donga.tv ☎ 222-6253

오하이오 니혼고 <820>

そんなに面白(おもしろ)いの?

그렇게 재미있어?

A:また漫畫(まんが)讀(よ)んでる、**そんなに面白(おもしろ)いの**?
B:こんなに面白いものないね。同好會(どうこうかい)にも入(はい)ってるし、いろんな キャラクタ商品(しょうひん)を集(あつ)めてるんだ。
A:すごいね、サイトウ—さん完全(かんぜん)にお宅屬(たくぞく)だね。
B:それほどじゃないけど今、はまってるんだ。

A:또 만화를 읽고 있네. 그렇게 재미있어?
B:이렇게 재미있는 것 없어. 동호회에도 들었고, 여러 가지 캐릭터 상품을 모으고 있어.
A:대단하군. 사이토우씨는 완전히 오타꾸족이군.
B:그 정도는 아니지만, 빠졌어.

キャラクタ商品(しょうひん) : 케릭터 상품
集(あつ)める : 모으다
完全(かんぜん)に : 완전히
それほどじゃない : 그정도는 아니다

〈광주 글로벌 외국어학원 제공〉
http://kglobal.wo.to ☎ 228-2545

니하오 쭝구워 <11>

你怎么不高兴

어째서 기분이 별로니?

A : 你怎么不高兴?
nǐzěme bùgāoxìng
니 전머 뿌까오싱

B : 我今天运气不好，考脚坏了，零钱也进水了。
wǒjīntiān yùnqì bùhǎo kǎojiǎo huàile língqián yě jìnshuǐle
워 진티엔 윈치 뿌하오 카오지아오 화이러 링치엔 예 진수이러

A : 以后要小心。哦，你的衣服怎么了？
yǐhòuyàoxiǎoxīn ò nǐdeyīfúzěnmele
이허우 야오 샤오신 어 니더이푸 전머러

B : 呵呵，原来我的衣服搭子脏了。
hehe yuánlái wǒde yīfukuzǐyè diàole
허허 위엔라이 워더 이푸쿠즈예 띠아오러

A : 왜 기분이 안 좋아?
B : 오늘은 운이 없어서 넘어져 고장 났지 돈도 물에 빠졌지
A : 앞으로 조심해야 겠네. 어때, 옷은 어떻게 된 거야?
B : 하하, 이게 보니 옷 단추도 떨어졌네.

运气 [yùnqì] 운명, 운세, 운수
小心 [xiǎoxīn] 조심하다, 주의하다

〈호남대학교 공자아카데미〉
☎ 383-8868

한자 이야기 <438>

倚門之望 (의문지망)

의지할 의, 문 문, 어조사 지, 바랄 망

의문지망(倚門之望)은 어머니가 대문에 기대어 서서 자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린다는 말이다. 따라서 이 말은 어머니가 자식을 마음으로부터 걱정하는 것을 비유한다. 다른 표현으로는 의려지망(倚閭之望), 의문지정(依門之情), 의문지친(依門之親)이라고도 한다.

이 말은 다음 이야기에서 나왔다. 전국시대에 제나라 왕손가(王孫賈)는 15세에 민왕(閔王)을 섬겼는데, 민왕이 내란(內亂)이 일어나 망명(亡命)하였지만, 소재(所在)를 알 수 없었다. 그러자 왕손가의 어머니가 말하길, "네가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돌아오면 나는 문에 기대어 네가 돌아오는 것을 기다렸다. 네가 저녁에 나가서 돌아오지 않으면 나는 마을 어귀의 문에 기대어 너를 기다렸다. 너는 지금 왕을 섬기다가 왕이 망명하였건만, 있는 곳조차 알지 못한다. 그런데 어떻게 네가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느냐."라고 하였다. 그 즉시 왕손가는 발분(發憤)하여 저자거리로 뛰어가 말하길, "요치(淖齒)가 우리 제나라를 어지럽혀 민왕을 살해하였다. 나와 함께 요치를 죽이고자 하는 자는 오른쪽 어깨를 벗어(袒右) 찬성의 표시를 하라."라고 하자, 마을사람들 4백인이 찬성하여 왕손가와 함께 요치를 공격하여 찔러 죽였다고 한다.

〈한예원(韓睿嫄)〉
조선대학교 고전연구원 ☎ 230-6505